

비싼 에너지값에 넉 달째 무역적자...금융위기 이후 처음

산업부, '7월 수출입 동향' 실적 발표 수출 607억불...동월 기준 역대 최대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1개월 연속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은 두 달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다소 둔화한데다, 주요 에너지원 수입액이 급증하고 반도체·농산물 등 수입액까지 늘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넉 달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6월~9월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달 중 종합 수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무역수지 적자 넉 달째...금융위기 이후 처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6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7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월별 수출액 증가세는 ▲1월 15.2% ▲2월 20.6% ▲3월 18.2% ▲4월 12.3% ▲5월 21.3% ▲6월 5.4%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6

월부터 월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액을 상회했다. 특히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90.5% 늘어난 18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우리 산업 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25%)와 밀(29.1%)·옥수수(47.6%) 등 농산물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4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다. 4개월 연속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원 중심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도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따라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4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세웠다. 4개월 연속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원 중심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도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15대 품목 중 7개 품목 증가...반도체 수출 역대 7월 중 최고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15대 주요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 등은 월간 기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 효과 품목인 반도체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내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오른 112억1000만 달러였다. 소비자용 IT 수요가 둔화하고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 축소 결정에도, 월 수출액은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1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선적 지연 물량이 이월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일부 해소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등으로 25.3% 증가한 51억4000만 달러였다.

석유제품 수출액도 고유가 상황 속 정가 보수 종료에 따른 가동률 향상, 하절기 수송용 연료에 대한 견조한 수요 등이 맞물리며 86.5% 급증한 67억2000만 달러였다. 선박(25억5000만 달러·29.2%)은 해양플랜트 수출, 이차전지(8억8000만 달러·11.8%)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철강(33억1000만 달러·5.2%), 차부품(20억3000만 달러·2.1%)도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컴퓨터 수출액은 고(高)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자제품 수요가 감소해 소비자용 SSD 수출이 둔화하며 27.3% 감소한 10억8000만 달러였다. 석유화학 수출도 시장 악화 등으로 1.7% 줄어든 46억7000만 달러였

다. 디스플레이(17억7000만 달러·-2.7%), 바이오헬스(11억7000만 달러·-12.1%), 가전(6억8000만 달러·-18.7%), 일반기계(42억9000만 달러·-2.9%), 섬유(10억3000만 달러·-9.6%), 무선통신(11억3000만 달러·-3.5%) 등 품목 수출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아세안 등 5개 지역 수출 증가...대(對) 중국 수출 감소

지난달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9대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석유화학 등 품목이 선전하며 14.6% 늘어난 100억 달러로 역대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20.9% 늘며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반도체·석유제품·디스플레이 등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유럽연합(EU) 시장으로의 반도체·차부품·철강 등 품목 수출이 늘어 14.6% 증가한 61억 달러였다.

반면 최대 교역국인 대(對) 중국 수출은 2분기 경기 둔화세가 본격화되고, 무선통신·컴퓨터 등 품목 수출이 줄어 2.5% 감소한 132억4000만 달러였다. 인도 지역 수출은 석유화학·철강·일반기계 등 수출 증가로 92.4% 증가한 23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중동 지역 수출도 석유제품·철강 등 판매 호조로 11.7% 늘어난 14억9000

만 달러였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1.4% 감소한 25억3000만 달러, 중남미 지역 수출은 7.9% 감소한 21억7000만 달러였다. CIS 지역 수출액도 10억6000만 달러로 5.7% 줄었다.

◆정부 "수출 정책 지원 필요...8월 중 대책 발표"

정부는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월 중 수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의 개선과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 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업·무역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CJ제일제당, 냉면만 300억원치 팔아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냉면 성수기 매출이 약 300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7월 한 달만 보면 매출이 120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성과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계속되는 무더위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냉면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J제일제당 냉면은 1인분 기준으로 가격을 환산하면 2000원대

로 냉면 전문점의 5분의 1 수준이다. 차별화된 맛과 품질도 매출 신장에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스테디셀러인 '동치미 물냉면'은 평안도식 정통 냉면 레시피를 구현했다. 또 독자적 제면 기술로 시중 냉면과 달리 일일이 면을 뜬을 필요 없이 끓는 물에 50초면 저절로 풀어지는 게 특징이다. 올 6월 새롭게 선보인 '청양초 매운 물냉면'도 입소문을 타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 추세라면 냉면 극성수기가 지난 이달 8월에도 매출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은 간편식 냉면 시장에서 낱소스 기준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간편식 냉면으로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가정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즐길 수 있다"며 "냉면 시장 1위 지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만원 이상 주문시 '1시간' 배송



홈플러스는 '1시간 즉시배송'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주문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고객에게 3000원의 배송비를 받아왔던 즉시배송 정책을 개선한 것이다.

'1시간 즉시배송'은 고객의 편리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보인 서비스다.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이용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7월) '1시간 즉시배송' 매출은 서비스 개시 이후 635% 늘었고, 총 구매자는 62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실적과 비교해도 매출과 총 구매자 수가 각각 150%, 158% 신장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즉시배송 배송비 정책 개선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즉시배송 서비스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2만원 이상만 구매해도 배송비를 면제해주는 '무료배송 쿠폰'을 최대 2회 지급한다. 또 '1시간 즉시배송'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장바구니 쿠폰(7000원),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쿠폰, 100원월 상품 혜택도 제공한다.

최이슬 기자

매일유업, 더 맛있는 '우유속에 프로틴' 출시

매일유업의 가공우유 브랜드 '우유속에'가 맛있는 프로틴 가공우유 '멀티그레인 프로틴'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제품은 300ml 한 팩에 단백질 10g과 국산 곡물 5종(현미, 보리, 잡쌀현미, 수수, 조)이 들어있는 청정 핀란드산 오트를 담은 프로틴 가공우유다. 유정단백질과 가제인단백질을 모두 함유한 유유단백질을 사용했다.

특유의 단백질 냄새가 없어 운동 전후는 물론 다양한 일상 생활 중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우유의 바디감과 조화를 이루는 풍부한 곡물의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단백질을 함유한 제품은 맛이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유속에 멀



티그레인 프로틴은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다"며 "바쁜 아침 식사 대용과 출출한 오후 간식, 운동 전후 단백질 보충에 모두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뉴스

롯데렌터카, '마이웨이' 출시

롯데렌터카는 긴 계약기간 유지 부담을 줄이고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반납 할 수 있는 '마이웨이'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차 장기렌터카 마이웨이는 최근 교체 주기가 짧아진 트랜드와 차량을 빠르게 바꾸고 싶어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다.

마이웨이 상품은 최초 계약시 48개월 계약 기준으로, 이용기간 24개월 후부터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반납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마이웨이 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중 준중형급 이상으로, 향후 라인업을 더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전남 '지역특화 가공식품' 20t 미국 수출...해외시장 확대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지역특화 가공식품이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비축기지에서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주)네이피에프앤비를 통해 전남에서 생산한 지역 특화 가공식품 미국 수출 상차식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길에 오른 가공식품은 쌀, 소스, 건나물, 절임반찬, 소스류, 양념 가공식품 등 60여종·20t으로 1억8000여만원 분량이다.

기존 계획된 신규 상품 발굴 목표였던 5개의 가공 상품보다 더 많은 품목을 발굴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장현순 (주)네이피에프앤비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관측행사를 열고, 한국식품로컬 도소매업체와 정보교류를 통해 전남지역 가공식품 판매망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수출은 도농업기술원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특화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 수출업체를 통한 우수 가공식품 경영체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외시장 확장으로 이어졌다.

전남산 가공식품은 미국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아 향후 지역 주력 수출 가공식품으로

전남도농업기술원 '우수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성과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도농업기술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수출 전문 업체와 연계해 도내 청년벤처농업인과 소규모 가공업체가 생산하는 가공식품들이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용철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수출은 가공식품 개발 경영체의 수출에 대한 열정과 의식 제고는 물론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